

AUTHOR 이기진

TITLE 칼빈의 죄악론

IN 개혁주의

39호 (7, 1970): 11-13.

40호 (8, 1970): 8-10

41호 (9, 1970): 15-16.

42호 (10, 1970): 14-16.

43호 (11, 1970): 10-11.

45호 (1, 1971): 13-15.

46호 (2, 1971): 10-12.

47호 (3-4, 1971): 10-13.

칼 빈의 죄악론

이 기 진

<진영음교회 목사>

1. 죄의 기원

1. 시련적 명령

하나님은 인생의 순종을 시취하기 위하여 한 명령을 내리셨다. 이 명령은 행위의 조건으로 내린 명령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다.

창2:16~17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갈아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갑자기 내린 명령이 아니다. 아무런 뜻없이 내려진 명령이 아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인생의 사이에 불가불 두어져야 할 선(線)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건인 것이다. 그것은 행위 언약의 조건이다. 인생이 하나님을 순종하므로서만 참 행복이 있고 생의 길이 있음을 명시한 길을 보여 주심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영생이 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생의 가치도, 생의 목적도 영생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대 순종을 원하신다. 인생이 하나님만을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인생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부여된 것이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는 부여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자유선택의 길이 열린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이러한 두 길을 열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계와 같이 취급하시지 않음이며 진계주의적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 주심이다.

사람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 속에서 시련적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시련적 기회를 통하여 사람은 충분한 순종을 보여야 했다. 자원하는 순종을 보여야 했다. 순종을 위한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야 했다.

아담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이다. 아담의 마음속 깊이 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률이 제쳐지게 된 것이다. 그 법에 따라 아담이 순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 의지도 있었던 것이다. 아담은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뚜렷한 것으로 아담 자신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 자유의지에 따라 무시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만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슬픈 결과이다. 불순종은 곧 죄악인 것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다. 사람의 발전과 지식을 방지하려는 뜻의 명령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 혹 잘못 생각하면 아담의 가능한 지식의 발달을 예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것이 아담에게 더욱 강한 시험의 요소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었다. 때문에 사람의 지식 발달을 예방하는 듯한 감을 주는 듯 보인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무슨 내용으로 알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어떠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기 쉬웠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식이 귀중한 것이라 할 아담은 알았을 것이다. 그 지식은 선을 아는 것이라고 아담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재하시는 사실이 있었다. 과

연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한 지식을 얻고져 하는 아담의 욕망을 예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담의 의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사탄은 여인에게 나타났다. 창3:5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여인을 유혹하였다. 이 유혹은 여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지식에 대한 의문에 자극을 주는 말이었다.

창3:6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고 한 말씀을 보면 시조(始祖)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시조의 마음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실로 강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횡(專橫)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험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맹렬한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험이 맹렬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충복하고 순종하는 순종심도 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순종이면 더욱 순전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상도 큰 것이 분명하다. 순종 후에 나타나는 영광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순종도 이와 같은

강렬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시련적 명령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기회였던 것이다. 이 명령은 분명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명령이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이었다. 결코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었다. 사람을 실족케 하여 불행하게 만들려고 시도된 명령이 결코 아니었다. 오직 이 명령을 통하여 행위인약이 요구하는 순종을 보이고 영생의 상을 얻게 할만한 처지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초보에서 완성되어지는 상태로 승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거룩과 하나님의 은총의 복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2. 인생의 최초 범죄(타락)

사람의 최초 범죄는 형식적 견지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선악과가 과연 어떠한 종류의 수목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실 그 자의가 괴라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악과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요 해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에게 "내가 이 과실을 먹지 말라"

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따 먹는 것이 결코 죄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과실이 다만 순전한 순종의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 시험에 낙제를 하게 된 것이다. 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실질적 성적에 있어서 사람의 최초 범죄는 정형적 범죄이었다. 즉 범죄의 본질을 분명히 나타내는 범죄이었다. 최초 범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원하는 것을 결정한 사실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절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대립하여 어떤 권리들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하나님과 갈아 절려고 한 원이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발하시면서 가지신 선한 의도를 오해하고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최초 범죄의 요소가 된 것이다.

이 최초의 범죄 요소를 살펴보면 지적면에서는 불신앙과 교만으로 나타났고, 의지면에서는 하나님과 갈아지려는 소망에서 생겨났고, 감정면에서는 금지된 과실을 먹어 얻어진 불성결한 만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의 활동은 합하여 하나님께 대한 교의적 불순종이라는 가혹한 범죄로 결과한 것이다.

<다음호 계속>

설

교

하나님이 갈아사대

(창1:1~31)

석 원 태

<영도 제일교회 목사>

성령께서 이 웅대한 계획을 여시는 방법에 있어서 무용한 호기심을 일으켜 줄 아무런 사색의 여유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1:1)는 말로 선언하면서 우주의 원질(arche)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 말씀하시는 인격적 신이심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즉 계시종교의 특이성을 들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에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써 필연적이거나, 우연적 활동이 아닌 그 자신의 기쁘신 주권에 의하여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히1:2, 요1:2~3, 창1:1, 욥16:13, 33:4)

모든 피조 세계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풍부한 다양성과 미(美)로써 천지를 훌륭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풍요한 피조 세계가 하나님 자신의 명령의지의 선언에 의하여 결과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본장에 강한 주역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무엇을 뜻하는가?

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기에 곤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스스로 있었다는 말이 유포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괴이한 진화론이 또한 범신론 사상이 힘을 얻었을런지 모릅니다.

유출설이 덕세하고 모든 것은 운명의 포로가 되어 버렸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묵시록까지 걸쳐서 정연하게 살아계셔서 "가라사대"를 발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이 한마디는 모든 그릇된 우주관과 몽롱한 사색의 회의를 당구는 철학적인 지식들을 능히 정돈해 버리고 만듭니다.

아쉬운 주체의식

임종만
(평신도 신학교 강사)

얼마전 일본이 북괴와 세균을 뱉
거래 하다가 발각이 됨으로 세상이
팔각 뒤집어진 일이 있었지만 아직
껏 여기에 대한 석연스러운 사과나
해명이 없었다. 그건 그렇고 요즘
은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대
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한
국이 공산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
우에는 출병까지라도 할지 모른
다”

고 공언하면서도 실은 공산국가와
살짝 살짝 상리에 눈이 어두워 이
중의교를 감행하는 표리부동한 짓
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분노
를 사게 되었다. 이런 일본에 대해
아직껏 아첨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
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미 고인이 되었지만 내 머리에 잊
을 수 없어서 여기 들은대로 몇마
디 적어볼까 한다. <이승만>대통령
이 <맥아더>장군의 초청을 받고 일
본에 간 일이 있었다. 하네다 공항
에 내려 마중 나온 장군과는 굳은 악
수를 나누었지만 일본 수상과는 악
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것을 잡아주
질 않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한
다.

그리고 어느 좌석에서 일본인이
등을 걸기를

“한국에는 호랑이가 많다지요?”
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이박사 서
슴치 않고

“전에는 많았는데 일본사람이 다
잡아먹어 버렸고 지금은 나 하나
만 남았오!”

라고 했더라는 것이다. 얼마후 그들
은 술빚을 바꾸어

“각하! 이제부터 일본은 한국을
적극 원조할 생각입니다. 만일 원
하신다면 우리 힘을 합해서 김일
성을 칠시다!”

고 했다. 이박사 가소롭다는 듯이
“일본과 합해서 김일성을 치느니
보다 차라리 김일성이와 합해서
일본을 치고싶소!”

라고 쏘아 버렸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 유명한 말중에 「일본이 일어
난다,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 속
지 말고 조선아 조심하자!」란 말이
생각이 난다. 모처럼 축복으로 득
립된 이 나라를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해 보자.

아-! 이박사처럼 민족적인 주
체의식이 아쉬워 진다.



<논 설>

<2 회>

칼빈의 죄악론

이 기 진
(진영음교회 목사)

3. 최초 범죄의 시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서 발하신 명령을 거역하므로 타락
하게 되었다. 사람의 타락은 뱀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뢰와 분신앙
의 종자를 심어 주므로서 시험의 기
회가 생겨진 것이다.

창 3:1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
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
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
냐”

라는 말씀을 볼 때 뱀이 어떠한 존
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
문케 하는 불의한자임을 알수가 있
다. 뱀은 가장 간교한 자였다. “간
교한자”란 말은 간사하고 교묘히 남
을 잘 속이는 자란 뜻이다. 뱀이 간
교한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
문이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말
하기를

“사람의 멸망을 목적으로 사탄이
동물들 사용하였는데 뱀의 타고
난 교유의 지혜를 이용 하였다.
사탄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동물 중에서 그가 볼 때 뱀이 자
기를 위하여 가장 적당한 존재임

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A commentary on Genesis by
John Calvin P.140)

뱀은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케 한것이다. 하나님의 명
령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
는 것으로 암시하며 의심이 생기도
록 뱀은 사람을 유혹한 것이다.

창 3:2~3에 여자는 뱀의 질문
에 자기의 아는대로 대답을 하였
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
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고 했을 때 뱀은 결코 그렇지 않
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
정한 것은 하나님을 이기적인 부당
하신 분임을 역설한 소치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 하며 자신
에 대하여 교만하도록 한것이다.

뱀은 사람에게 그 과실을(The
tree of knowledge) 취식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된것을 말했다.

하와는 뱀을 말을 듣고 나무(樹木)를 보았다. 유심히 보았다. 뱀의 말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는 그에게 호기심을 주었다.

창 3:6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였다. 하와는 그 열매에 극도로 매력을 느꼈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그 과실을 취식하게 된 것이다. 분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남편에게도 과실을 주에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세계에 죄가 들어 오게 되었으니 죄는 거짓과 자기 중심의 욕망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들의 수험 범죄(受驗犯罪)는 하나님을 야심자로 여기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시작 된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될려는 교만은 인간 스스로에게 불행을 갖어 왔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 대신으로 자기의 의지를 불법으로 삼는 불순종은 무서운 범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4. 최초 범죄의 결과

(1) 인생의 전적 패양(人生全의敗壤)

사람의 최초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상중 하나인 인생의 전적 패양이다. 인생이 범죄하면 즉시 전적 패양은 수반되어 졌다. 이것은 인간 전체에 이르는 상처이다. 인간 후예들은 조상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의 만신 창의의 달잡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최초 범죄로 인하여 인생의 신체와 영혼의 모든 능력과 모든 심력을 다 상치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전적 부패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게 되었다.

창 6:5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롬 7:18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엡 2:1~3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라”

칼빈 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는 이와 같은 성경 중심의 사상인 것이다. 인간 전적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할때 이것은 인간의 어떤 가능한 힘의 한도를 패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무능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어쩔수 없는 가련한 존재인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영적인 이 가련한 자리에서 어쩔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2) 하나님의 형상 상실

앞서 말한 인간의 전적 부패는 인간의 적극적인 거룩과 상대적 완전, 전체적 조화로 구성된 원시적 의, 혹은 도덕적 형상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원시적 의의 상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고전 2:14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 하나니라.”

는 원시적 의의 수반물의 상실이다. 이리하여 사람의 원시적 의, 즉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은 그 수반물까지 전적 상실된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생명과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 (엡 2:12, 4:18, 2:1~5)

(3) 오염과 죄책의 의식

사람의 실상의 변화가 의식에 반영이 되었다. 그 첫째가 이 오염(汚染)의 의식이 있어 수치의 감과 나체를 가리울려는데서 그 자체를 계시한 것이다.

창 3:7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주석가 랑게(Lange)는 말하기를 “사탄의 약속이 여기에서 반쯤 이루어 진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허지만 실패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바랐던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고 하였다(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Gensis-leviticus, by John Peter Lange DD, P. 230).

사람의 변화는 선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니고 오염의 의식으로 수치를 느끼며 생각밖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갔음이 분명한 것이다.

둘째로 변화된 것은 죄책의 의식이 있어서 감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 피하는 기형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진 것이다. 이 모두가 오염으로 나타난 죄책의 의식 결과이다.

(4) 육체적 사고(肉休的 死苦)

아담의 범죄는 영적 사망만이 아니었다. 육체의 사망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최초 범죄의 결과로 되어진 인간계의 비극인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본래 그를 취했던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창3:19) 이로 인하여 사람은 죽지않는 피조물에서 죽는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남녀는 극심한 체무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차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방울은 말하기를 롬 5:12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말하였다.

롬 6:23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고 하였다.

이렇게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저주와 진노의 비참한 사망이 되고 이 육체적 고통과 죽음은 그후에 저주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칼빈의 죄악론

이 기 진
(진영읍교회 목사)



1. 죄의 근본적 성격

1. 죄의 성질에 대한 모든 학설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께 대항하였으며 범죄함으로써 창조된 본연의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종교계와 도덕계에 난문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가" 함이다.

죄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떠한 사람을 물론하고 자기의 성질을 반성하여 보건때 자신이 참되고 옳고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없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볼 때에도 그 행위면에 있어서 죄라는 해악(害惡)이 있다는 확신의 강압을 받지 않는 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외면적 세계와 함께 인간성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로 노력하는 철학영역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시대 모든 학파의

학자들이 이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여 왔으니. 다음 몇가지를 논의해 볼가 한다.

(1) 이원론(二元論)

이원론(The dualistic theory)사상은 하나님과 물질이 다 같이 영원적이라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영은 신의 원질을 대표하고 육체는 악의 원질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죄는 일종의 육체적 해악이라고 하여 영혼이 물질적 신체와 연합한 때문에 오손(汚損)이라고 한다.

이 학설의 대표 인물들은 그노시스파(Gnostics), 말기온파, 마니키안파 등이다. 그러나 이 학설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죄를 순전히 육체적이며 물질적으로만 보는 물질 해악설(物質皆惡說)이고 사람의 윤리적 성질을 부인하니 죄의 관념을 파열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영은 선이고 육은 악이라 한다. 둘째 죄를 영원적 근원에 기원한 육체에 필지(必至)한 것으로 묘사하므로써 사람의 책임을 파괴하려 한다. 그리하여 죄를 피하는 유일의 방법은 육체로부터 구출됨이다. 그로부터 금욕주의 혹은 방탕

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2) 착각론(錯覺論)

이 이론의 대표자는 스피노자(Spinoza)이다. 스피노자는 주장하기를 사람의 죄의식은 단순히 인생의 지식이 부족하여 배 사물을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에 관계시켜 생각지 않고 단편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죄가 보여지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만일 지식이 상당하면 죄의 관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니 죄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잘못 되었다. 이 이론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은 인생의 도덕성을 철폐하고 도덕적 성격과 도덕적 행위 관념들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마는 것이다. 또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공허로 돌려 버리는 망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 또는 양심의 증거 등이 생의 진부를 착각으로 보는 때문이다.

(3) 필연적대립론(必然的對立論)

이 이론의 근대적 대표자는 술만 로이스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악은 신의 필연적 조건이라 한다. 즉 세계의 배 사물이. 대립의 필연적 법칙에 의하여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충분한 장애가 없으면 강력의 발달이 없고 피곤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고 비애가 없으면 희락이 없고 사가 없으면 생이 없고 악이 없으면 선이 없을 것이니. 선은 악의 저항 혹은 중복이다. 생은 상호 반대하는 세력들의 충돌에 의하여 발전되기를 구성되었는데 도덕적 세계도 죄의 반항없이 성립되지 못할 것이니 죄는 덕의 존재의 필연적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이 그릇된 것은

죄를 세계의 필연한 것으로 만들고 만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그 책임자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악없이 선의 존재가 불가능할진대 죄악은 경피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또는 도덕적 해악을 도덕적·선의 필연적 조건으로 착수함에 서 가능과 현실을 혼돈하는 비상한 실수에 빠지고 말게 된다.

(4) 자의식론(自意識論)

이 이론은 술나이 막셀(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가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 의식에 대한 자의식의 고투라고 한다. 그는 사람의 죄의식은 그의 하나님 의식에 의존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감성(感性)이 일어날 때에 즉시 그것에 대한 반항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성질의 구조로부터 오는 것이니 일종 고유력(固有力)의 불완전인 것이다 사람의 원시적 상태에서 그의 하나님 의식은 그의 자의식을 절대적으로 관환하리 만치 충분히 강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나님 의식의 충분히 강한 이상적 상태는 오직 진보 발전을 경유하여 도달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의식의 절대적 관환의 결함으로 일어나는 감상은 죄악이요, 하나님 의식이 당연히 통치할 것이라는 확신은 죄책감이다.

그래서 이 죄악 죄책의 감과 함께 구속을 필요한 감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이론은 하나님을 죄의 창조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죄란 것이 객관적 존재를 가진 것은 아닌 것이다. 오직 사람의 의식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계속>

지기 바란다.

아시아에 신흥도 국가 보면 인도네시아가 10%, 코리아 7.7%, 홍콩이 4%, 대만 3.4%, 말레이시아 1.8% 그외 아시아 1% 이하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흥도는 하루가 급한 것이다. 서 아시아 위해 특히 기도 바란다.

IV. 공산주의 도전

공산주의는 우리 장막 뒤 북한, 중국, 몽고, 소련, 월맹이다. 공산 국가 인구는 8억 2920만이다. 이들을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다. 중공엔 기독교방송 라디오 듣고 설교말씀 듣고 쓰고 하여 지하교회가 있고 외국서 보낸 편지로 신앙의 도

움 받는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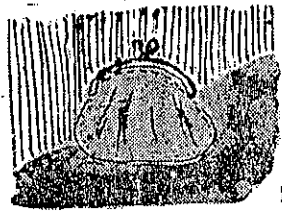
세일론에는 미국 선교사 외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마에는 신자가 가면 70시간 이상 있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바울의 책임감 있는 말씀을 보자. 이스라엘을 아세아로 고쳐 읽겠다.

롬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아세아를(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기록 김석영 전도사)



<논 설>

<4 회>

칼빈의 죄악론

이 기 진
<진영음교회 목사>



(5) 육감론(肉感論)

이 이론은 죄는 사람의 육감적 성질에 기원하고 죄소를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육체적

유기체와 연합되어 있는 결과라고 가르친다. 이 이론은 사회 역사에 뜻을 두고 자라온 원리로서 불일(不一)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니키안(Mani) 체계는 물질의 본질적 악함을 가르키고 있다. 또한 후대 로마교는 사람이 본래 창조될 때 영혼이 육체에 복속하도록 구조되었는데 아담의 경우에 이 본래적 해악은 원시적 의의 초자연적 은익에 의하여 수정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됨에 육감적 성질은 다시 독세된 것이라고 해설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 어떠한 형식에든지 죄의 진성질이나 진기원(眞起源)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물질은 사람의 육체의 성질에 관한 한 고유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는 이것은 물질이 독립적 존재를 가졌다거나 혹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의 책임적 창조자라고 책임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육감적 성질의 상태이거나 동작이 아니다.

성경에 죄악한 피조물로 재시된 것은 자체와 육육을 가지지 아니한 타락한 영들이다. 고로 이 이론은 사실에 불완전한 추리에 의거한다. 이유는 가장 가증한 죄들의 번육, 시기, 교만, 악의, 불신앙 등이 사람의 영혼 성질에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육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금욕주의는 육육의 세력을 약화함으로써 죄의 세력을 필연적으로 약화할 것이며 또는 마귀는 신체가 없으며 죄 흉악한 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원인이 육재라는 말은 성경을 외면한 것이다(롬 7:18).

죄가 육체에 머문다고 말할 때에 자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전체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육체와 영의 시역이 비교될 성구에서 육체는 사람의 타락된 성질을 의미한다(롬 8:5).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

다” 했으니 이 영은 성령을 가르친다. 바울 서신 중에 육신이란 말이 신체의 외면적 의식적인 것을 가르키는 것도 허다하지만 이 말이 도덕적 의미로 사용될 때엔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인생 전체를 의미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역은 육감적인 일만 아니라 타락된 인생의 생활에 있는 모든 악을 포함하고 있다. “육체”는 사람의 신체와 그 감각적 생활을 의미하고 “영”은 그의 이성을 가르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오해이며 일반적 입장을 무시하게 된다.

(6) 진화론(進化論)

테넌트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발전시킨 것이니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도덕적 의식에 대한 일동성비들의 반항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즉 자연적 충동들과 유전적 성질들은 죄의 재료를 형성하지만 그것들이 인류에 점진적으로 이터나는 도덕적 의식에 반대하여 활동하기까지는 실제로 죄가 되지 않는다. 개인과 인종의 도덕적 사적 발달에서 사람은 동물로부터 유전받은 극단의 자아주장의 정욕들로 말미암아 혼돈상태를 이룬다. 이 혼돈상태 중에서도 의지(意志)는 중립하여 발전하는 도덕적 감성에게 정죄를 받는 것에는 경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급 충동에 의한 피동이나 고급 충동에 의한 불순종 등인 죄악은 이론적으로는 절대적 필연이 아니지만 경험상으로는 사람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한다.

이상의 말한 것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또는 피할 수 없이 죄인이 됨은 사람의 선조인 동물들로부터 전

래한 자아주장의 정욕들을 상속한 연고란 말이다. 환언하면 죄악의 근원은 사람의 동물성에서 발전된다고 함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죄의 성질을 논하는 자들은 정의하여 말하되 “죄는 전형에의 복귀이며 방지된 발전이고 진보법칙의 위법이며 진화의 거부요, 활역 충동에 저항이라” 한다.

그러나 어러한 그들의 주장과 같이 사람의 동물성이 죄의 발생지근원이라면 죄는 사람의 고유적 속성의 발동에 불가하니 그것을 타락이라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는 “중립한 의지”이니 “발전하는 도덕적 의식”이니 해서 사람의 특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으나 사람에게 는 그것보다 먼저 죄악의 본원이 동물성에 있었다고 하니 타락이란 말을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 그러므로 죄의 기원을 사람의 동물성에 찾는 이 견해는 결국 죄의 실체를 부칭하게 될 것이다.

죄가 만일 사람의 조상인 동물의 유물일진대 그것은 인생의 구조에 의해서 불가피적일 것이다. 결국 만인이 모두 피할 수 없이 범죄할 것이니 거기에는 사람의 의지가 능히 어찌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 의 의지에 반항이 되지 않을 것도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로서 사람에게 죄책을 돌릴 이 유가 없으질 것이니 결국 죄 자체가 부인될 것이다. 또는 진화 법칙에 위반이 죄라는 정의는 사람의 동물성을 죄의 근원으로 보는 동시에는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진화의 사물이 진화를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된 것이 무엇이냐? 진화의 법칙이란 인격적이 아니니 그것

을 경외하고 정을 발하는 자는 누구며 그것을 위반하였다 해서 죄책

을 느낄자가 어디 있느냐?

<다음호 계속>

축

발

은

(부민교회 집사)

전

은

조

축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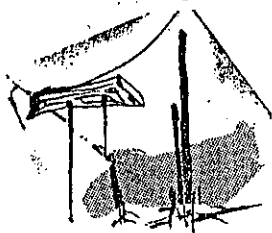
은

(서면 제일다방)

보고 지나칠 때마다 어찌 그의 무덤이 애굽에 있지 않고 여기 있나 할 때마다 과연 요셉은 임종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졌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성취를 오랜 시일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애굽에서 나그네 노릇의 첫 사람이며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단 마음으로 순종 했습니다. 이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도 애굽인에게 원망 았했으며 하나님 순종하고 섬기는 때만 전심했고 애굽인을 도운 것은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스며있는줄 알고 깊이 조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경운인줄 알고 조금도 나그네 생활에서 불평이 없었고 사라 생전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드리 간다고 조급하지 않는



<5 면에서>

곳에 떨어진 후에 3년 6개월 동안 매바론 이스라엘 은 지면에 단비가 풍성하게 왔다. 우리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한국교회가 새로 위될 것이다. 우리의 제단도 엘리

것은 “나는 죽어나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라”는 신앙이었으며 죽은 후에도 순종하겠다는 심리적 생활에 순종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해골을 가지고 올라 가라한 것은 그는 사라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다한 것 사후에 해골이 타도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는 순종하여 나그네로 있는 것도 기쁜 일이나 순종하여 가나안에 드려가는 것도 더욱 기쁘고 죽어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이 크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시 90:3는 명령에 돌아갔으니 다 순종했습니다.

그의 말과 생활은 바랄것이 없었고 죽은 해골도 귀하게 여길만 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가 세상에 남긴 감화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야의 제단 같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수축하되 법대로 수축하고 구별된 제단으로 제물을 올리자. 그리하면 성령의 불로서 응답될 것이다.

<논 설>

<5 회>

칼빈의 죄악론

이 기 진
<진영음교회 목사>



(7) 심리론 (心理論)

현대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종교 심리학이란 과목을 두어 기독교적 죄관을

논평하여 죄악과 죄책의 사실을 부인하고 기독교 중심 사상인 구원의 필요를 말소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① 병적 상태설

죄를 일종의 병적 상태라고 하여 생리학적 문제로 취급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설은 죄의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으나 죄의 죄독성 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고 따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관한 아무런 죄책도 갖지 않게 만든다. 만일 병적 상태라고 하면 죄는 병들어 신음하는 자의 고통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죄책하는 것은 무자비한 공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② 정신 불건전설

윌넬·제임스의 저서 “종교 경험의 재상”에 진술하기를 유죄감이 병든 영혼, 혹은 불건전한 정신의 부르짖음이나 또는 일종의 병적 고

민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죄악과 죄책의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해 버리는 견해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소위 건전한 인물은 죄를 느끼지 못하였고 만물을 볼때 완결 완미(完善完美)하다고 하며 사람은 능히 건전한 정신을 교양하므로 또는 사실을 추상적으로 선미하게 생각함으로써 혹은 상상계에서 교악(苦惡)을 고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마침내 낙관화하여 교악을 받지 못할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신적 의료운동과 기타 종교행식을 가진 어떤 생활방식들은 모두 인생을 낙관화 하는 계획의 실제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임스의 그릇된 설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선의 참 빛속에 서만 단순히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그 방법이 선히 건진되는 한에 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요 인생의 우월이 도래할 때 그것은 무력하게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 또는 실혹 사람 자신이 생의 우월중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할지라도 건전한 정신이 될 수 없고 정신 건진이 깨아무리 죄악의 존재를 거절할지라도 교악의 사실들은 실제 존재의 건전한 일부분이다.

(8) 펠라기우스의 죄론

펠라기우스(Pelagius)는 말하기를 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자유로 선을 위반하는 의지의 개별적 행동이고 인간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설의 그릇된 이유가 할 수 있는 자유로 범한 것만이 죄라고 하고 인성이 악화하여 하지 않을 수 없이 범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비 성경적이니 창 1:31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말씀에 위반이니 인생을 하나님과 그 도덕적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원리에 위반되고 양심 증거에도 반대된다. 비록 인생이 순종키 불가능해도 양심은 제방한다. 만일 인생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책임이 있다면 인생의 책임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이니 죄에 대한 성경적 정죄를 부인하고 만다.

(9) 로마 키토리교회의 죄론

죄는 의지의 의식적 행동에서 구성되는 것이니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으로 선을 어긴 것이 죄라고 하며 인간의 내심의 빈욕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에 그릇된 것은 죄를 재관적 행동에만 두는 것이며 죄 자체를 논하지 않고 “인화목”(引火木) 연료를 논한다. 그리하여 죄를 감각적 물리적 것 뿐으로 고찰한다. 그러나 빈욕은 죄요, 성품은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근본적 의는 부가한 것이 아니요 인생의 본래의 성품에 고유한 것이다.

(10) 칼·발트의 죄론

칼·발트(Kal Borth)는 말하기를 “죄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도덕행위이다. 즉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를 둘러싼 사신을 과감하게 넘어 버리는 도덕행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접촉할 권리나 용통성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 놓은 거리를 취중에서 오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결성을 잊을 때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웃으로 임하며 하나님을 인간의 웃을 임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든 낭만주의의 하나님 즉 그야말로 하나님 아닌 하나님에게 헌심(獻心)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덕행위 곧 역사적 구체적인 죄의 일면은 역사적도 아니며 형제적도 아닌 죄의 다른 일면을 생각케 한다. 죄의 다른 일면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도덕 행위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재 관계에서 떠나자이다. 이것은 거짓되고 이런 아이같지 않은 지혜이나 곧뱀의 지혜이다. 이것은 시간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의 성경관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도 안전성이 있는 지식의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하며 시간과 공간 외에 하나님의 본체라야 절대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트의 죄관은 시간의 “배후에 있는 타락”이란 것은 성경에 나타난 아담의 타락을 역사적 행위로 보지 않고 일종 초역사적인 말연개(末然界)에서 된 사항으로 본 입장이니 비성경적이다.

<다음호 계속>

◆수 상◆

어느 판사의 이야기

— 잊을 수 없는 사람 (3) —

심 군 식

(본지 편집인)

내가 고등 학교 학생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니 J음에서 되어진 일이다.

교회당 사무실 방을 빌려 쓰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B라는 서울 대학 출신의 똑똑한 청년 내의였다.

B선생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일차 고등 고시에 응시한 일이 있었으나 초시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교회당 사무실 방을 빌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적고 잘 생긴 얼굴엔 항상 눈보라를 느끼게 했다.

유독 나와는 친한 사이어서 대화가 통하고 있었다. 그는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허길래 그와 나는 만나면 그 당시 인가가 있는 까무의 “이방인”이며 “페스트”를 말했고 샤르트르의 “벽”을 논했다.

그는 대단히 열심있는 공부꾼이었다. 밤잠을 별반 차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 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 일에도 열심이였다. 청년회를 조직하고 회칙을 만들고 헌신 예배시엔 종종 설교도 하였다. 설교도 잘 하는 편이었다. 음성이 좀 약하기는 했으나 내용이 충실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B선생님, 꼭 고등 고시에 합격하는 것만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어 보시지요.”

그 때 B선생의 얼굴엔 재미 있어 보이는 상쾌한 웃음이 흘렀다. 그러드니 그는 무겁게 입을 여는 것이다.

“심선생, 그래 내가 무엇이 되면 좋겠오!”

하고 반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유독 작은 나의 두 눈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목사님이 되셔도 좋겠습니다.

설교도 잘 하시고 특히 행정을 잘 보시니까.”

그랬드니 B선생은 반색을 하는 것이다. 한참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주시해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검은 구름 그늘이 계곡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두워 보였다. 그리고는 무엇이 확 밝아오는 표정을 보이더니

“목사! 나는 목사는 되지 않겠오.”

딱 잘라 말을 뱉으려 하는 것이다.

“왜 목사가 싫습니까?”

나는 다시 반문을 했다.

“싫은것이 아니라 피고싶지 않아

<6 회>

칼빈의 죄악론

이 기 진

<진영유교회 목사>



2. 성격적 죄관 (Calvin의 罪觀)
종교 개혁 시대에 프로테스탄트 재교회는 죄의 성질을 철학적으로

시도하려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 도덕적 의식에 의지하여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일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는 루터파 개혁주의 제 신학자들 즉 멜랑톤, 겔할트, 파이엘, 칼빈 등의 해설을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죄는 다른 모든 형식의 해악보다 특종의 해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죄는 율법과 관계를 가져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으리만치 상관적인 것이며 이러한 죄가 관계물 가진 율법은 단순히 이성이나 양심이나 편리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다. 죄는 본질

적으로 하나님의 성질 혹은 율법에 향한 이성적 피조물의 불일치로 구성된다는 것이니 죄는 죄책과 도덕적 오범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신학, 칼빈의 죄관을 기초로 하고 성격적 죄관을 진술코저 한다.

(1) 죄는 특종의 해악이다.

현금 사람들이 해악을 많이 말하고 죄에 대하여 적게 말하니 이는 오도하는 것이다. 모든 해악이 다 죄인 것은 아니다. 죄를 물리적 해악 즉 유해한 것 혹은 재난과 혼돈해서 안된다. 우리는 죄를 해악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병도 해악이라고 말하며 같은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물리계 이상에 윤리계가 있어 도덕적 선과 악이 구별되나 이 세계에서만 우리가 능히 죄를 말할 수 있다. 죄는 도덕적 해악이다. 성경에 죄를 가르켜 사용된 명사들은 거의 다 죄를 도덕적 성질로 지시한다.

(a) 죄의 어의(語意)

히브리어 Hattáth(하타트)의 근본적 의미는 과녁에 화살을 쏘는데 목표를 그르쳤다는 것이다(시 51:23). 헬라어의 Hmaltion(하말티아)도 동일한 의미를 표시한다(마 1:21, 눅 15:8).

히브리어 Abel(아벨) 혹은 Abol(아불)은 죄악 혹은 불의를 말한다 이는 지정된 정도에서 떠나게 됨을 의미한다(민 23:21, 유 33:27). 헬라어 ParaToma(파라토마)는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진리와 정도에서 떠남을 의미한다.

히브리어 Pesh(파세)는 반역,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것, 율법의 적극적 위법, 언약의 파괴를 관설한다(시 51:1~3, 유 35:15, 호 7:13, 창 31:36). 헬라어 Parabasis(파레빠시스)는 해당한 뜻을 가진다(태 15:2, 요 2서 9, 눅 15:29). 히브리어 Resh(레사)는 율법으로부터 악하게 떠나고 죄책적으로 지시한다(창 18:23).

헬라어 Hamartolois(하말토로이스)는 여기 반영한 것이다(딤후 1:9).

그리고 헬라어 Adikia(아디카이아)는 불의, 불공평 등의 뜻이 있다(롬 1:18, 요일서 5:17). 이상과 같이 성경의 통상으로 죄에 대한 언어의 의미에서 죄의 윤리성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이 교리에 중요함과 이 언어의 공통된 것은 즉 죄는 어떤 표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그르쳤다는 것과 죄에는 윤리

적 근원이 있음과 또 거기에 결과된 비운이 있다는 것이니 단순한 실패나 불행뿐만이 아니다.

(b) 죄라는 윤리적 관념은 도덕적 의식의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살필때 우리의 양심은 도덕적 책임의 사실을 즉시 증거한다. 양심이 깨어 있는 죄인은 자기의 책임과 유죄를 변동 없이 시인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죄가 자체의 특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은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는 것을 안다.

(2) 죄는 절대성을 가진다.

윤리계에 있어서 선과 악의 대립은 절대적이다. 양자 간에 중간적 지위는 없다. 인생은 옳은 편이나 그른 편이나 어느 한 편에 있는 것이다. 이 양자가 다 정도를 가진 것은 다르나 선과 악 사이에 계급이 있지는 않다. 즉 양자 중에 양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질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선한 도덕적 존재가 악하게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선을 감소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급격한 질적변화로 죄에서 전향함으로 되는 것이다. 죄는 선의 저급이 아니라 적극적 죄인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벌써 악하다고 지시했다. 고로 성경은 도덕적 중립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악자를 권하여 의에 전향하라 하며 혹시는 의인이

악에 타락함을 말하나 중립 상태에서 이진한다는 것을 가르키는 표현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면을 볼때 사람은 옳은 편에 있지 않으면 그른 편에 있는 것이다 (마 10:32, 12:30, 눅 11:23, 약 2:10).

(3) 죄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를 갖는다.

죄는 하나님의 성질 급 그 의지에 관계하여 사오하지 않고는 그것의 정확한 관계를 가지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이라”하였다. 이것이 개혁파 신학의 죄관이다.

(a) 죄는 율법에 불순종이다.

요1서 3:4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다. 롬 4:15에 바울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나니라” (롬 2:12~14, 5:13, 약 2:9~10)고 하였다. 이와같이 죄관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의식도 죄를 율법의 불순종으로 가르킨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양심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표준에 순응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를 정죄한다. 즉 물리적 세계에서와 같이 도덕적 세계에도 율법이 실제하여 선악 판단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의식되는 것이다.

(b)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순종이다.

성경은 죄의 구성에 표준인 율법

이 하나님의 징하신 바라고 가르킨다. 바울은 다수의 죄를 목록한 후에 롬 1:32에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징하신 바라”고 하였다. 고로 다윗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능욕임을 통감하여 시 51:4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적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양심의 도덕적 책임감은 사람의 순응을 요하는 도덕적 표준과 함께 이 표준의 제정자이신 도덕적 통치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양심은 율법이 우리의 의지에 있는 권위, 즉 하나님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우리에게 부과됨을 증거한다. 이 양심의 증거는 초자연적 계시가 없는 증에서 이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권위를 인식케 하며 하나님의 상선벌악을 알아 구원의 제의를 행하게 한다. 고로 우리에게 도덕생활을 명령하고 책임을 지우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구조의 위법이나 사물체계의 범칙을 위법함이 아니라 형벌로서 자기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인격적 임법주의시며 도덕적 통치주에게 반항하여 침해함이다.

<계 속>

<논 설>

太極道를論한다

(제 2 회)

金 鍾 萬
(신감천 교회 전도사)

神 觀

비결과 경진에 대하여 약술 하였으니 이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신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태극도의 신관은 易學의 잘못된 신관에서 온 것이다. 지 유명한 ‘헬만 헛세, 는 역학이야 말로 세계의 최고의 지혜의 글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그 神觀에 대하여 모순을 지적한다.

豐卦 象傳에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해가中天이면 기우러지기 마련이요 달이 차면 이즈러지기 마련이라. 天地間에 사람이외에 神이 있어 天地日月과 같이 盈虛消長하고 人生이나 사회와 같이 興亡盛衰하고 있다”고 하였다.

乾卦 文言에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天回不違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대인의 행동은 天地日月四時의 운행하는 자연 법칙과 일치하

고 또 神의 作用도 일치하며 大人이 선하다 하는 것은 神도 선하다고 하고 大人이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선도 선하지 못하다고 하며, 大人의 행동은 神도 어기지 아니하는데 어찌 사람이나 神이 그를 어길 수가 있으랴” 하였다.

경卦 象傳에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疏峻 鬼神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天地人은 교만한 자를 버리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는데 神도 또한 교만한 자에게害를 주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도다” 라고 하였다.

이 몇절을 보아 역학은 완전히 神의 存在를 推想的으로 肯定하는 동시에 사람도 神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神도 被造物과 如히 消長盛衰하면서 사람의 선악에 대하여 吉凶禍福을 주는 作用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思想은 드디어 自然崇拜(Worship), 精靈崇拜(Animism), 物神崇拜(Fetichism), 禁忌(Toboo), 사마니즘과 人乃天的

중심한 경남노회 12명의 총대를 제 명 치단하였던 것입니다.

3. 우리 교단의 발족(1952년)

1952년 9월 11일~12일 까지 진주에 있는 성남 교회당에서 목사 50명 장로 37명의 총대로 제 1회 총노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에 선출된 임원은 회장 : 이약신, 부회장 : 한상동, 서기 : 홍순배, 회록서기 : 오병세, 윤봉기, 회계 : 주영문, 부회계 : 황성하

1952년 9월 22일~10월 12일 까지 목사, 장로, 남녀 전도자들은 자속하여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한 후 제 2회 총노회를 1953년 3월에 부산 삼일교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후 제 8회 총회는 경기노회의 재판하는 일로 인해 보류 선언되었고(그 후 경기노회는 없어졌음), 1969년 제 10회 총회에서는 합동하기로 하고 12월 13일에 합동을 하되 7대 조건과 22개의 작은 조건을 피차 서약하고 합동하였으나 결국

은 의하지 못하여, 1962년 10월 17일에 교신 복교 선언하고 12월 18일 복교한 후 5명을 졸업 시켰습니다.

다음해인 1963년 9월 3일에 경북노회가 환원되었고 9월 17일에 총회가 환원되었던 것입니다.

소 감

1. 오늘날은 우리의 신앙의 족보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고
2. 우리는 합동측이나 다른 교파와 너무 가까운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주일학교 직원강습회에 통합측의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3. 우리의 신앙은 통합측이나 기장, 합동 그 외의 어느 교파 보다 올바르게 가고자하는 특별한 길인 줄 알고 교육을 시키며 세속적인 교육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골몰하여 깨어 일어나는 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새로이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 전국 C·E 입사회 —

아래와 같이 전국 C·E 입사회가 모이오니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일 : 3월 1일 오후 6시

장소 : 동일교회당

1971년 2월 일

회장 · 정규춘 서기 · 이우성

<는 설>

칼빈의 죄악론 (7 회)

이 기 진

<전영음교회 목사>



(4) 죄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 요구와의 관계. 「죄는 율법의 불순종이다」는 것은 죄의 형식적 정의로서 정확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나 그것의 내용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의 실질적 정의를 얻을 수 있다.

(a) 기본적 율법과 공포적(公怖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보편적 시행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일반적 표현이니 기본적인 것과 공포적인 것의 두 형식을 포함한다. 기본적 율법은 이성적 비이성적 피조물들의 실질세력에 설정된 율법이니 자연율과 도덕율의 2종으로 구성된다. 그 중 자연율은 물질적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니 물질적 세력에 의하여 시행되며 자체의 독립적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도덕적 질서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중에 도덕율은 이성적 자유적 동력소질들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니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시행되며 자체의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자연질서의 봉사를 받는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성질의 기본적 율법인 이 도덕율에 특별한 심을 가지며 이것의 가장 독특한 성질 2조에 주목을 요한다. 즉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질의 근본적 속성인 기록에 기인한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며, 둘째로 그 기록에의 절대적 순종을 사람의 정상(正像)적 요구상대로 한다. 이 율법은 사람의 이성적 도덕적 실재에 설립된 것으로서 사람이 이를 성취하기에는 오직 그가 이성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때 일뿐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질이 도덕적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니만치 영원적 보편적이며 그 성질이 도덕적 실재물 한계를 두고 필연적으로 표현된 것이니 인간성질의 이상이다. 이 율법의 존재를 향하여 만민이 증거 하나니 이 교도들의 양심도 이를 향하여 그러한다. (롬 2 : 14-15) 성.

문율법을 소유한 자들은 이 기본적인 율법을 보다 더 큰 범위와 투입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롬10:4, 빌 3:8-9)

공포적 율법은 공포된 규율에 나타난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니 역시 2종이다. 첫째로 일반적 도덕적 교훈은 기본적인 도덕율의 성문적 요약이나(태 5:48, 22:37-40) 혹은 그것의 특별한 인간정상에 권위적 응용이다(출 20:1-17) 둘째로 의식적 혹은 특별한 지명은 영적 훈련의 열등정도, 혹은 초기 계규에 적당한 기본적인 율법의 예시, 혹은 약근적 계시이다. (출 20:25, 태 19:8, 막 10:5) 고로 도덕적이거나 의식적이거나를 물론하고 모든 공포적 율법은 더 기본적인 율법의 계시인 것이다. 그것들의 형식은 변할 수 있으나 실질은 영원하다. 그 표현 방식은 모세의 율법체계와 같이 폐지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요구들은 불변한다. (태 5:17-18, 엠 2:15) 인간 언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공포적 율법이 기본적인 율법의 전 내용과 의미를 그 자체에서 표현하지는 못한다.

(b) 하나님 율법의 내용과 요구.

하나님의 율법은 기록에 기인한 그의 의지의 표현이며 사람의 도덕적 성질에 부과된 이상이니 만치 포괄적인 내용과 최고상한 요구를 가진다. 내용의 전적 포함성의 율법은 우리 위에 항상 있어 우리의 과

거, 현재, 미래에 모두 관계될 가진다. 이것은 가히 사유될 수 있는 죄마다 금지하며 가히 사유될 수 있는 덕마다 명령한다(시 119:96, 롬 3:23) 내용의 정신적 방면 정의(正義)한 언행을 명령할 뿐 아니라 정의한 성향과 상태를 장려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한 의면적 봉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의 내면적 성격의 일치까지를 목표로 한다. (태 5:23-28, 막 10:30-31, 고후 10:5, 엠 5:1, 맨진 1:16) 요구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이성적 피조물의 도덕적 성질 및 행위가 하나님의 성결 및 의지에 완전한 사랑으로서 순응하기로 요구한다. (막 12:30-31)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완전한 요구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전적 일치, 우리의 충력을 그의 봉사에 성현할 것과 그의 의지에 절대 복종할 것을 포의(包意)한다. 이것은 율법의 최종고한 요구이니 천사나 영화한 성도에게라도 이것 이상되는 도덕적 요구는 없다. 또는 완전한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중에 어느 것이나 제외할 것 없고 전부 수행함을 요한다. (약 2:10) 즉 율법은 신성(神性) 의지에 전적 순종을 요구한다. 어쨌든 최포괄적이며 최종고한 율법의 내용과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치 아니한 때의 최초 사람

만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타락된 인류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앞에 죄책과 오염의 죄심한 통감을 가지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과인 기탄없이 사죄하는 영혼이라도 양심의 감각이 전부 잊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죄가 내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동시에 형벌을 받음이 당연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식한다.

(5) 죄는 죄책과 오염을 겸한다. 죄책은 하나님의 공의(公義)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고 오염은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관계를 가르킨다. 죄의 이 두 요소는 각 죄인의 양심에 계시되어 있나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에 책임을 지고 그의 성안(聖眼)에 증오됨을自知한다. 또 성경은 부절히 선언하기를 모든 죄는 기록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뿐 아니라 그의 진노의 대상, 시벌(施罰)의 공의로운 이유라고 한다.

죄책이란 형벌 받을만한 가치 즉 율법의 자의적 위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한 보상을 드릴 책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실재라기보다 사람에게 관한 실재 하나님의 판단에 의존한 것이다. 신학적으로 죄책을 「罪狀」이라 칭하고 다음에 實價的 죄상과 罰價的 죄상으로 구별한다. 實價的 罪狀은 고유적인 可責狀이니 이전되기 불능하고 罰價的 罪狀은 공의에

대한 형벌의 負債이 능히 또는 실제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 양자는 비록 동일어로 표시되었으나 판연히 상이하다.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受罰할 책임이 그에게 이전되었다 함이요, 우리의 可責狀이 그리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신자가 稱義된 때에 그의 受罰의 책임은 면제 되었으나 그의 可責狀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현재 어떤 범죄자가 범정에 피착(被捉)되어 受罰하면 그의 죄로 인한 受罰의 책임은 없어졌으나 그의 可責狀은 여전히 남아있다. (롬 3:19, 5:18, 엠 2:3)

오염은 죄인마다 굴복하는 고유적 부패를 말한다. 그것은 각 개인의 생활에 실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죄책없이 사유되기 불능하다. 또 형벌 관계의 포함도 죄책은 직접적 오염없이 사고(思考)될 수 있을지라도 죄책에 항상 오염이 수반함은 사실이다. 아담 안에서 죄책을 가진 각 사람이 그 죄책의 결과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출생된다. 죄의 오염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귀질에 분명히 교시(敎示)되었다. (유 14:4, 롬 17:9, 태 7:15-20, 류 8:5-8, 애 4:17-19)

(6) 죄의 座所는 마음속(心中)이다

죄는 영혼의 어떠한 心力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心中에 머무나니 성경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은 영혼의 心中기관이요, 그것에서 생이 유출한다. 이 마음 속으로부터 죄의 감화와 공작이 지력과 의지와 감성기 불능하고 罰價的 罪狀은 공의에

<21 페이지로>

질은 안개만이 자욱해 갔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자유를 되찾는 단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간 악령을 정복하는 일과 범죄한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 한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잔교하게 인간을 쫓아 자유를 박탈해간 악령을 정복하는 일이나 인간들을 그 범죄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가 있을 수 없다. (행 4:12) 오직 그분만이 악령을 정복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시며 잃었던 인간의 참 자유를 다시 인간들의 품에 안겨 줄 수 있다.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악령을 정복할 수 없고 그분이 아니고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으며 그분이 아니고는 인간들에게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 주실 분은 없는 것이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화

생의 재물이 되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시고 운명직전에 그의 과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요 19:30) 외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과 큰 희생으로서 이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즉 예수께서 희생의 재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악령을 정복하시는 일과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상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일과 아울러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다시 찾게 하시는 이 위대한 과업을 한꺼번에 다 이루신 것이다. 바울 사도께서 이 점에 대하여 자유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중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다. (갈 5:1) 즉 자유의 방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고인 것이다. (다요훈 계속)

이론과 어린이가 함께
읽고 즐길 동화집
심근식 지음

잃어버린 왕자

4·6판 / 150면 / 값 180원
세명출판사 발행

이름을 새로 바꿈

김혜 가락 교회
구명 성 병 구 목사
신명 성 요 한 으로 개명하오
니 앞으로 성요한으로 불려 주시고
서신 인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 설>

칼 빈 의 죄 악 론

(8 회)

이 기 진

<진영음교회 목사>



(7) 죄는 표면 행동에만 구성되지 않는다.

죄는 행동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죄악한 습관과 영혼의 상태로도 구성되는 것이다. 즉, 죄악한 상태는 죄악한 습관의 기초가 되고 죄의 습관은 죄악한 행동에 이른다. 사람의 죄악한 행동과 성향은 부패한 성질에 관계를 갖는 것이며 그것에서 설명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태가 철두철미 죄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예수님께서 (마 12:33~35) 나무와 실과의 구별로서 악심과 악행의 구별을 비유 하셨고 또 바울은 (롬 7:23~24) 죄의 법이 마음 속에서 立管함을 통탄 하셨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모든 선민의 경험이니 그들은 자기들 안의 악행만 아니라 하나님의 眼前에 가증한 惡行惡思도 있다

는 것을 의식한다.

(8) 죄의 정의(定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十四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응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여기는 것이니라」고 하였으며 성경적 죄관을 종합하면 「죄는 행동에서나 성향에서나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불순응이다」라고 정의할 것이다.

3. 죄의 유전과 轉嫁

A. 원죄란 무엇이나?

(1) 웨스트민스터 신조 「인생의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한 것과, 根本義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는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범죄이다」 혹은 「이 죄로 인해 시조는 根本義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떨어졌으며 또한 이로써 그들의 죄에서 죽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영과 육의 모든 재능은 전적으로 부패케 되었다 시조는 전 인류의 뿌리임으로 이 죄의 유죄는 전가되었고 또한 그들이 죄에서 부패한 성품은 그들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 되었다. 이 근본적 부패로부터 우리는 마침내 모든 선을 환영하는데 불편당하여 불능하며 반대하게 되었고, 또한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며 모든 실제적 범죄를 진행케 된다. 이 세상에 있는 於間에 부패한 성질은 중생자에게도 남아 있으며 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는 용서되고 제어 되었을지라도 이 두 가지와 거기대한 모든 다른 동기는 잠으로 상당한 죄다]라고 하였다.

(2) 원죄란 語言의 의미

우리의 개인적 인격적 존재는 그 중에서 시작되며 시조의 제일차적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 이는 전체적 타락의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영혼의 본질 요소가 추리나 정서적 반작용 의지등에 대한 실제적 작용을 할 수 없으니 만치 변하게 되어 아니요, 죄가 영혼의 독립과 같이 주입된 요소임을 의미함도 아니요, 인생의 고상한 영적 특성 즉 그 자녀나 아내나 책임등을 사랑함과 같은 재능을 소유치 않았다는 말이 아니며, 인생의 특수한 훈련 환경 하에서 애저적 노력이나 윤리적 도

덕적 행동의 불능하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죄의 부패가 인격 전체에 유효케 됨이니 즉 우리 영의 각 특성과 작용에 있어서 유효케 됨을 의미하고, 또는 근본적 義와 거룩을 상실하여 그 결과로 인해 도덕적 특성의 전체적 타락됨과 그로인해 모든 선명한 선, 즉 하나님의 의지를 반역하는 고집을 의미하고 또는 인생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아래 있게 됨을 의미하고, 중생한 후에도 옛 성질이 남아 있음과, 혹은 인생이 자기의 개성 성질의 경향을 전혀 고치기 불능함과 그로인해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죽게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락은 소극적 義의 결핍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 즉 영혼의 그릇된 初점에 곁합을 의미함이나 성격적 결함이 있으면서도 적극적형태를 취하게 되니 불법한 것이며 적극적인 악의 능동적 원칙이니 교의적으로 싫어 함이다. (롬 4:8~11, 요 2:11, 히 3:13, 벧 후 2:19, 히 2:15)

이상과 같이 원죄는 영혼의 요소의 부패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창조자가 만든 그대로 있으나 타락된 것은 영혼의 특색만에 관계되나니, 예수님께서도 참된 인생의 영과 개성을 갖으시면서도 이 타락의 원죄는 없으셨다. 그리고 타락은 영혼의 재능도 아니요, 결핍도 아니다.

이 타락한 성질은 역시 유전적으

로 유려, 즉 빌받을 수 밖에 없는 악을 전승함으로 우리는 나면서 진노의 자식이니, 이로 인해 우리는 나면서부터 법의 저주 아래서 빌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의 입장에 있으며 또한 그 법의 형벌인 사망에 복종케 되었다. 과연 우리는 실제적으로 유일한 영적 영생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죄타락은 인격 전체화하여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엡 2:14, 약 4:4, 고전 2:14)

B. 대표 원리

인간이 여하튼 대표자로 맡기어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1) 일반 원리에서 증거,

국가는 대표자에 의하여 의회에서 행동한다. 만일 국가가 어진 군주나 혹은 대통령을 모시면 국민 전체가 선한 결과를 영수하고 만일 악한 군주나 대통령을 모시면 국민 전체가 그 악한 결과를 맞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은 부모는 그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표적 지위에서 있다. 이처럼 대표 원리는 일반 인간 생활에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성경 교리에 위반 됨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 원리를 증거한다.

(2) 교리 형성

(롬 5:12~19) 「한사람의 불순

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로 인하여 들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까닭이라」고 분명히 증거되었으니 한사람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정죄되었다.

아담은 단순히 전 인류의 시조뿐만 아니라 신, 인간 계약에 있어서 약속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대표자였으니 죄책도 전가된 것이 분명하여 수난과 사망은 죄의 결과로 선고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난과 사망 당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까닭이다. 영아시대 자기가 범한 죄가 없어도 병으로 알고 죽는 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한 受罰의 결과이다. 물론 의식은 우리에게 아담의 죄는 우리 죄가 아니라 는 것과 그 죄는 우리 뜻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 양심이 아담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감을 느끼지 않을런지 모르며 우리 부모의 죄를 자복할 수 없다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제일차 약속때에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아담이 자기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한 시련의 결과인 죄의 법적 결과에 우리도 그와 연합케 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로써 우리는 그와 한몸같이 취급되었으니 즉 우리는 타락한 죄의 결과인 죄책을 아담과 동일한 모양으로 취급된 것이다.

(3) 빙적 연합

첫째로 인류가 아담과 자연적으로 연합됨은 그가 인류의 뿌리가 된 까닭이요, 둘째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됨이니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행위 언약의 대표적 머리가 된 아담의 행동은 인류에게 직접 관계를 가졌으며 또한 인류는 그 약속의 위반한 형벌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적 회생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한 약속을 향유함과 꼭 마찬가지로

(4) 죄轉嫁의 성경적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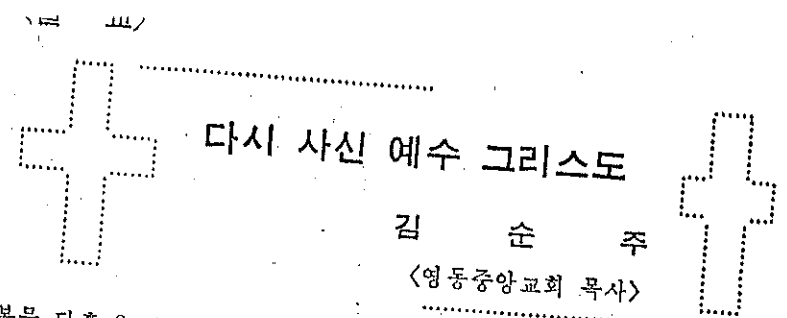
아담이 공인의 입장으로 자기 개인만을 위하지 않고 그 후손을 위해 대표적으로 행동했으니 그 행동 속에는 그의 행동이 그의 후손에게 빙적 결과의 전가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가 대표적 머리로 행동하고 있음은 창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하였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며 (창 3:15~19, 9:3) 등에도 분명히 나타났다. 즉 인생에게 선입한 짐승을 입장함과 번식에 대한 명령과

지상실과를 향유하는 특권과 안식일을 기록케함 등을 하나님은 분명히 시조 두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도 확실히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신 것이었다.

이와같이 전 인류는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사망의 위협과 순종으로 얻는 생명이 포함된 약속에 내포되었다. 혹은 (창 3:15)에 더욱 명백히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깨친 인류에게 새로운 약속을 발표하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류의 영적 사망과 현재의 저주에 대한 경험적 사실은 대표가 없으면 해석할 길이 없다. 이와같이 인류의 불행은 시조의 범죄의 결과이다. 엠 2:1~5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가 온데서 행하여 이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가 온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롬 5:12~19, 고전 15:21~22)에도 분명히 나타났으니 누가 부인하겠느냐? (끝)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김 순 주
〈영동중앙교회 목사〉

본문 담후 2:1~13

서 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종교는 Animism, Judaism, Islam, Hinduism, Buddhism, Shintoism, Confucianism 등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교 중에 기독교의 특이성은 교조의 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묘가 없느냐? 그 이유는 교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의해서 생각코자 하는 제목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 론

I 첫째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힘의 원천(source of strenght)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 밖에 기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 (담후 4:6)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언약한 개척교회

들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 스승들은 복음의 본질을 공격하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였읍니다. (2:18절) 복음에 대한 배도는 바울 일행에 까지 침투하였읍니다. 고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하였읍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3:12)고 하였읍니다. 이런 가공 할만 한 상황속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힘의 원천을 소개했으니 그 원천은 곧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귀결은 복음의 중심이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그 힘의 원천이었읍니다.

말세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둘러싼 위험 사회의 부조리로 인한 속에 근심밖에 걱정이 있습니까? 자신의 언약으로 넘어질것 같습니까? 힘의 원천을 바라봅시다. 힘의 원천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